

제105회 총회 임원후보 기호 추첨, 공명선거 다짐

오는 21일 성결대서 첫 정견발표... 인터넷 생중계 예정

제105회 총회 임원후보 등록이 모두 완료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종원·이하 선관위)는 지난 6일 총회본부 대예배실에서 공명선거를 다짐하며 기호추첨을 갖고 후보자들에 대한 당부와 기호를 배당했다.

추첨결과 △부총회장 후보 기호1번 노윤식 목사, 기호2번 이상문 목사 △서기 후보 기호1번 송영만 목사, 기호2번 강명국 목사가 배정됐다.

이날 선관위는 정견발표에 대한 방법과 유의사항도 발표했다. 수도권에 대상이었던 정견발표는 4월 21일(화) 오후 2시 성결대학교 학술정보관에서 진행된다. 전 일정이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며, 참석한 대의원들에게는 교통비와 식비, 고품질의 경품도 다량으로 준비되어 정견발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있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어야 할 선거가 자칫 상호비방과 흑색선전으로 얼룩질 수 있다며 경품 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며 비방과 인신공격이 없는 정견 중심의 정견발표를 지양한다는 것이 이번 선관위 정견발표의 큰 특징"이라고 밝혔다.

지방권역을 대상으로한 정견발표는 4월 27일(월) 오후 2시 대전 계통스파텔에서 진행된다.

정견발표는 총회장 후보와 부총회장 각 7분으로 제한되며, 단독으로 출마한 후보들은 3분 이내



총회임원 후보 왼쪽부터 회의록서기 후보 김규식 목사, 서기 후보 임태진 목사, 부총회장 후보 이상문 목사, 총회장 후보 이종만 목사, 부총회장 후보 노윤식 목사, 서기 후보 송영만 목사, 부회계 후보 김용빈 장로

에 발표를 마쳐야 한다.

한편, 후보등록이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4월 18일 0시를 기해 공명선거기간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모든 후보들은 선관위에서 주관하는 선거공영제도 이외의 선거운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선거공영제는 임원후보자들의 후보방법으로 선관위 주

관 하에 총회홈페이지와 성결신문에 한하여 공고하고 있으며, 공식선거운동 기간에는 후보자들이 대의원들을 향한 사적인 접촉까지도 금지하고 있다.

이날 기호추첨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는 총회장 홍사진 목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후보들이 되시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서는 생명도

걸 수 있는 우리 예성의 지체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설교했다.

선관위원장 박종원 목사도 "임원 후보자들은 스스로 자원해서 출마한 만큼 겸손하게 준비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이루어져 하나님 위한 일에 힘써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제80회 정기총회 개최



'부르짖어 샘을 터뜨리라' 주제로 200여 명 참여

여전도회전국연합회(회장 이해경 권사)가 지난 3월 30일 오전 11시 경기도 양평 여전도회100주년기념수양관에서 제80회 정기총회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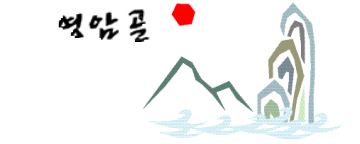
'부르짖어 샘을 터뜨리라'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는 전국 지회에서 모인 2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회부처리와 함께 결속을 다졌다. 또 임기가 2년인 임원은 모두 연임됐다.

회장 이해경 권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수석부회장 황명옥 장로의 기도, 김미향 권사의 성경봉독, 총회장 홍사진 목사의 '아름다운 헌신'이라는 제하의 설교가 있었다. 홍 총회장은 "세상

것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여전도회 회원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환영사를 전한 여전도부장 이상화 목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여전도회 회원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부총회장 이종만 목사, 전 총회장이 상문 목사, 교육부장 노윤식 목사를 대신해 한 현숙 사모의 격려사가 있었으며, 교단 총무 권순달 목사의 교단보고와 축사, 남전도회전국연합회 회장 차현용 장로, 장로회전국연합회 회장 이천장로의 축사와 축하연주가 이어졌다.

공로 및 감사패 수여식도 있었다. 여전도부장 이상화 목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으며, 전 회장 이금옥 권사에게도 공로패가 수여됐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사법부 및 지교회 보고, 예산안 심의 등의 회부 처리가 이어졌다.



부활절과 전쟁

오래전 찾았던 미국 뉴욕의 UN 센터에서 나는 인상 깊은 조형물을 보았다. 총구가 구부러져 기능을 상실한 총의 모습과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사2:4)고 각인된 성경 구절이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51개국의 국가 지도자들이 신흥강국으로 떠오른 미국 뉴욕에 모여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UN을 설립한다. 그러나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 사람들에게 의한 평화는 그 생명이 길지 않은 불완전한 평화이다.

크고 작은 전쟁의 소문은 그 후에도 계속되었고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피리를 불고 이어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주시는 샬롬(shalom)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셔서 고난받고 죽어 무덤에 묻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대한 예언의 성취이다. 또한, 그것은 불의에 대한 정의의 승리요, 사망에 대한 생명의 승리이며 절망에 대한 희망의 승리이기도 하다.

봄꽃들이 일제히 개화하는 것을 보면서 생명의 신비와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게 된다. 모진 추위 이겨 내느라 등걸은 벗겨졌고 앙상하게 메달라 죽은 듯 서 있었는데, 그 가지 끝에서부터 꽃망울이 눈을 뜨고, 털레이라도 하듯 꽃들이 연이어 개화하는 모습은 참으로 신비롭고 나아가 역동적이다. 이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관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 11:25-26) 라고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은 온 인류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부어진 부활의 은총은 온 세상을 구원하며 생명으로 이끄는 빛이었다. 부활의 은총이 쉽지 않은 세상을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는 사람들, 외롭고 슬펐던 마음들을 다독거리며 특별히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여 평화의 세상으로 나가는 발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부활절이 지나고 있으니 중동의 전쟁이 끝나고, 중동 전쟁 뉴스로 잠시 잊고 지냈던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났다는 소식이 당장 내일이라도 들려왔으면 좋겠다.

清水 ehc3s@hanmail.net

함께 걷는

예성공동체



105회기 총회 목사 부총회장 후보

기호 2 이상문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성총회를 구성하는 열개의 손가락중 제게 귀하지 않은 마디는 하나도 없습니다.

묵묵히 사명을 지키시는 모든 사역자 한 분 한 분

제게는 그 모든 성소(聖所)가 세상 무엇보다 귀한 모석입니다.

엄지 손가락처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큰 교회의 헌신은 언제나 감동이며,

저진 광야에서 꿈을 띄워내기 위해 홀로 분투하는

작은 교회의 사역은 제 가슴가장 아픈 곳에 머무는 손가락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을 이룬 '영적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예성의 아픈 곳을 먼저 어루만지는 따뜻한 손길어 되고 싶습니다.

열 손가락이 작지를 질 때 비로소 간절한 기도의 손이 되듯이

소외된 이의 작은 숨소리가 정박이 되고,

더 아픈 손가락에 응하여 온기가 머무는 성경-

열 손가락 간절히 모은 기도의 온기로 예성을 다시 뜨겁게 타오르게 하겠습니다.

